

미니어처 말에 대한 試論的 考察

양 성 혁*

목 차

- I. 머리말
- II. 미니어처 말 출토 현황
 - 1. 연구 대상
 - 2. 재질 및 제작방법
 - 3. 시대별 출토 유적 현황
 - 4. 출토 유적 유형별 현황
- III. 형식 분류
 - 1. 형식 분류의 기준
 - 2. 형식 분류
 - 3. 형식에 따른 시공간적 분포 양상
- IV. 민속신앙과 미니어처 말
- V. 맺음말

* 국립전주박물관

국문요약

고고학 현장에서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지 않는 유물이 출토되면 우리는 대체로 어떤 상징성을 지닌 의례 용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흙, 쇠 등으로 만든 미니어처 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니어처 말은 일반적으로 출토 상황이나 민속신앙의 사례를 들어 기원의 대상 혹은 의례의 도구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막연히 추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고고학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예도 거의 없다. 이에 본 글은 고고학 현장에서 발견되는 미니어처 말의 제작방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형식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형식들이 시간적 속성과 공간적 속성을 지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재질에 있어서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고대에는 토제의 비율이 높았으며, 중근세에 들어서면서 철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형식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그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유적 수는 중근세로 갈수록 증가하였지만, 공간적으로는 오히려 산 정상이나 사찰, 민가 등 한정된 장소에서 확인된다. 이는 말 신앙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이후 국가적 차원의 마제(馬祭)가 유교적 형식으로 바뀌면서 민간 신앙으로 확산되었다는 기존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산성을 포함한 산 정상에서 미니어처 말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니어처 말과 관련된 의례행위를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산악신앙 혹은 국사당 신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Ⅰ 주제어 Ⅰ

미니어처 말, 의례 용품, 형식 분류, 마제(馬祭), 산악신앙

I. 머리말

고고학 현장에서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지 않는 유물이 출토되면 우리는 대체로 어떤 상징성을 지닌 의례 용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흙, 쇠, 청동 등으로 만든 조그마한 말 조형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형의 말 조형물은 일반적으로 출토 상황이나 민속신앙의 사례를 들어 기원의 대상 혹은 의례의 도구로 추정되고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2, 2014; 국립전주박물관 2016; 국립중앙박물관 2017). 물론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막연히 추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고고학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예도 거의 없다. 이에 본 글은 고고학 현장에서 발견되는 소형의 말 조형물에 대한 시대별, 지역별, 출토 유적별, 재질별 현황을 검토하여 그 변화 양상을 간취하고자 한다. 또한 재질, 마구의 착장 여부, 세부 표현 및 제작방법을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하고, 이러한 형식들이 시간적 속성과 공간적 속성이 지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전래되거나 채록된 민속신앙과 비교 검토하여 소형의 말 조형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고고학 현장에서 확인되는 소형의 말 조형물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말과 관련된 조형물에는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형의 말 조형물 말고도 마형대구(馬形帶鉤), 말 자체 혹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토기로 제작한 마형토기(馬形土器) 혹은 기마인물형토기(騎馬人物形土器), 실용 토기 겉면에 부착되었던 말 모양 토우(土偶), 무덤에 순장품으로 부장되었던 말 모양 토용(土俑) 등이 있다. 이것들은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형의 말 조형물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흙, 쇠, 청동 등으로 제작되는 소형의 말 조형물을 크기는 5~15cm 가량으로, 형태는 머리와 마구 등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과 형태만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있다. 기존 보고서 등에는 대체로 마형토우(馬形土偶), 마형토기(馬形土器), 마형우(馬形偶), 마형조형물(馬形造形物), 토마(土馬), 토제마(土製馬), 철마(鐵馬), 철제마(鐵製馬), 쇠말, 청동제마(靑銅製馬) 등 재질로 명칭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재질을 사용한 명칭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에 의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소형의 말 조형물에 대한 합리적인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민덕식(2002)과 이윤희(2011)은 ‘모조마(模造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모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복제품(imitation)’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본 글에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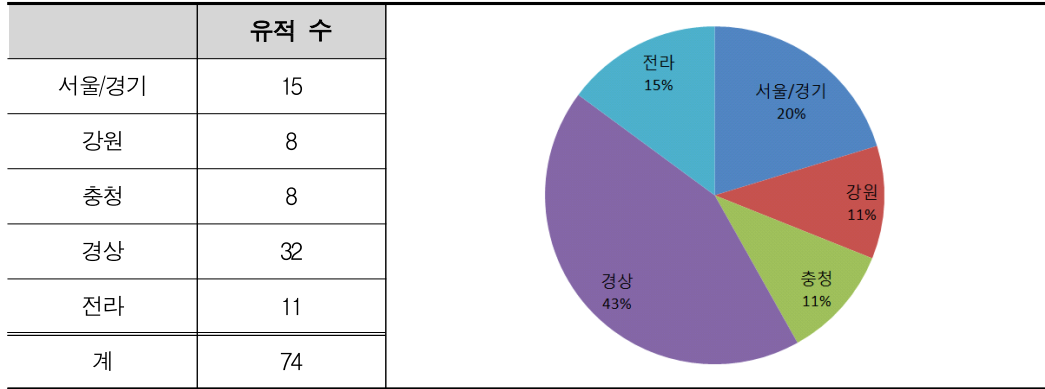
루고자 하는 소형의 말 조형물은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흙이나 철을 가지고 말의 모습을 축소하여 만든다는 점에서 말의 축소 모형의 의미를 내포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모형(模型)¹⁾이라는 뜻을 지닌 ‘미니어처(miniature)’가 적절하다고 본다. 앞으로 소형의 말 조형물을 재질의 구분 없이 ‘미니어처 말’이라고 하고자 한다.

Ⅱ. 미니어처 말 출토 현황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니어처 말은 서울 서린동 유적 등 모두 74개 유적에서 650여 점이 확인된다(국립전주박물관 2016).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에서는 15개 유적에서 90여 점이, 강원지역에서는 8개 유적에서 100여 점이 확인되었다. 충청지역에서는 8개 유적에서 30여 점이, 경상지역에서는 32개 유적에서 100여 점이 출토되었다. 전라지역에서는 11개 유적에서 330여 점이 수습되었는데, 특히 광양 마로산성에서는 모두 240여 점이 출토되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지역 전 지역에서 확인되었는데, 경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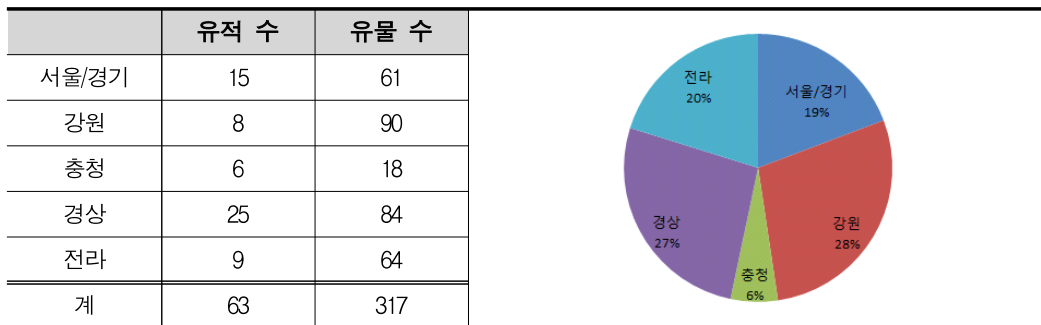
표 1. 지역별 출토 유적 현황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각 지역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미니어처 말은 머리카 다리가 온전히 달린 채로 출토된 예는 거의 없고 사지가 분리된 채로 수습되었다. 일부에서는 머리카 다리 혹은 마구인 안장만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관계로 개별 미니어처 말에 대한 전체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소개체수를 고려하여 미니어처 말의 머리, 다리, 마구만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몸통을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유적에서 1점 내지 10여 점 내외로 출토되는데 반해, 광양 마로산성의 경우 한 유적에서 240여 점이나 나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통계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유적에서 출토된 미니어처 말의 개체수를 정리하면, 서울/경기지역은 15개 유적 61점, 강원지역은 8개 유적 90점, 충청지역은 6개 유적 18점, 경상지역은 25유적 84점, 전라지역은 9개 유적 64점으로 모두 63개 유적 317점이다(표 2).

표 2. 최소개체수를 고려한 지역별 출토 현황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진행은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자 한다.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유적의 양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74개 유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 또한 개별 미니어처 말의 양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미니어처 말의 머리, 다리 등 일부만 출토되거나 다른 유적에 비해 월등히 많이 출토된 광양 마로산성 출토품을 제외한 63개 유적에서 출토되는 317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재질 및 제작방법

미니어처 말은 크게 흙으로 빚은 토제마(土製馬)와 쇠로 만든 철제마(鐵製馬)로 나눌 수 있다. 흙으로 빚은 미니어처 말에는 유약을 바른 도제마(陶製馬)도 있지만 청진 1지구 유적과 포천 반월산성, 대구 시지동 문화유적 등에서 4점만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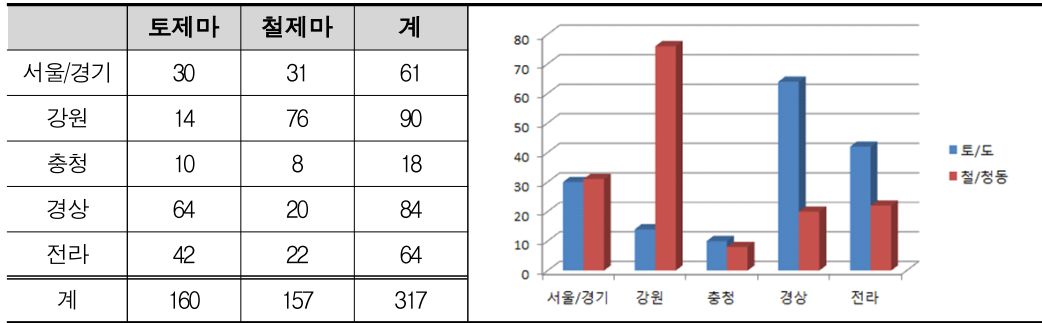
동으로 만든 청동제마(靑銅製馬) 역시 양주 대모산성과 익산 미륵사지에서 각각 1점씩 확인된 것이 전부이다.

토제마는 대부분 손으로 빚은 후 불에 구어서 만들었으며, 크기는 대체로 5~15cm 가량이다. 형태는 크게 얼굴, 굴레 안장 등을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선각으로 표현하거나 점토를 덧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말의 얼굴 등 세부 표현 없이 말을 단순하게 형상화한 것도 있다. 도제마 역시 시유를 한다는 점에서 토제마와 제작 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흙이란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다는 점에서 말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토제마와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제마를 토제마의 범주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철제마와 청동제마는 대부분 주조품으로, 이성산성에서만 단조품이 나타난다. 대체로 말의 형태만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많으며, 안장 등의 마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 주조품의 경우 일부 말의 눈이나 갈기, 안장 등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품 중 청동제 주조품 1점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말 위에 마구가 얹어져 있는 형태이다. 말의 눈과 갈기를 음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고삐, 안장, 말띠, 다래 등을 도드라지게 덧붙였다. 검토 대상 중 단조품은 이성산성 출토 2점이 유일하다. 이것들은 머리와 몸통, 다리와 꼬리 부위를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단면은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다리와 안장을 두들겨 붙였다.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국립부여박물관 소장품 중 출토지를 알 수 없는 단조품도 있다. 이것은 얇은 철판을 오려서 머리와 다리, 꼬리를 표현하였다. 별도의 마구는 없지 않았다. 청동제마 역시 철제마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철제마의 범주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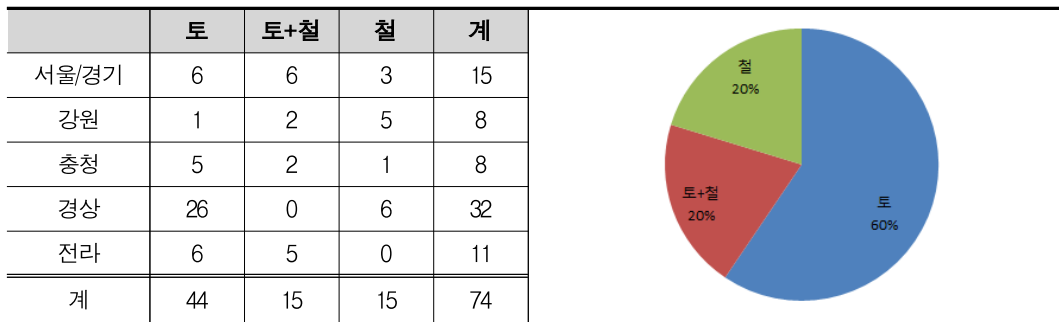
검토 대상을 지역별로 재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에서는 토제마와 도제마가 30점, 철제마와 청동제마가 31점이, 강원지역에서는 토제마가 14점, 철제마가 76점이 확인되었다. 충청지역에서는 토제마 10점, 철제마 8점이, 경상지역에서는 토제마와 도제마 64점, 철제마 20점이 수습되었다. 전라지역에서는 토제마가 42점, 철제마가 22점이 출토되었다. 강원지역에서는 철제마가, 경상지역과 전라지역에서는 토제마의 출현 비율이 높았다(표 3).

표 3. 지역별 재질 현황



74개 유적에서 토제마(도제마 포함)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는 44개소 대다수이지만, 철제마 단독으로 출토(15개소) 되거나 혹은 토제마와 철제마(청동제마 포함)가 함께 출토(15개소) 되는 경우도 있어 재질에 따른 기능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지역의 경우 철제마 단독으로 출토되는 유적이, 경상지역에서는 토제마 단독으로 출토되는 유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표 4).

표 4. 재질별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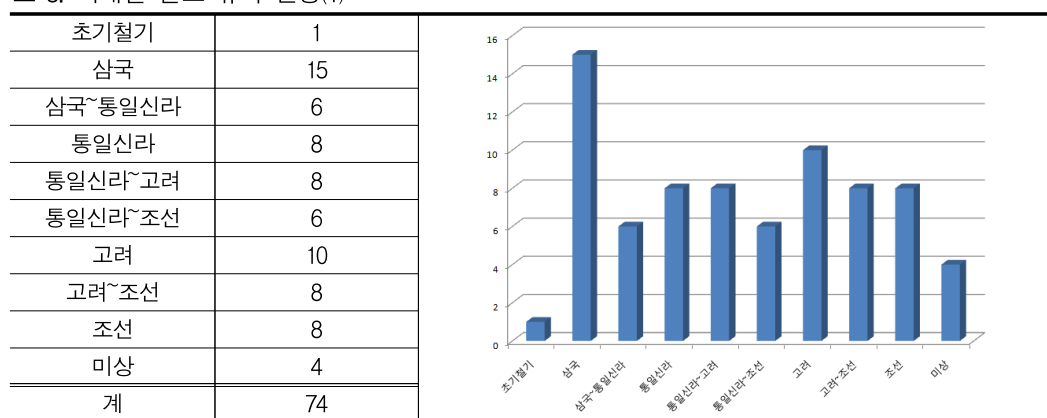


3. 시대별 출토 유적 현황

검토 대상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초기철기시대 김해 부원동 패총 출토품이다. 이후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전 시기에 걸쳐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었다. 시대별 유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문제는 가장 출현 빈도를 보이는 산 정상과 사찰의 점유 시기가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미니어처 말의 사용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시기를 한정하기보다는 보고서의 유적의 점유 시기를 바탕으로 미니어처 말의 사용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그 결과 미니어처 말의 사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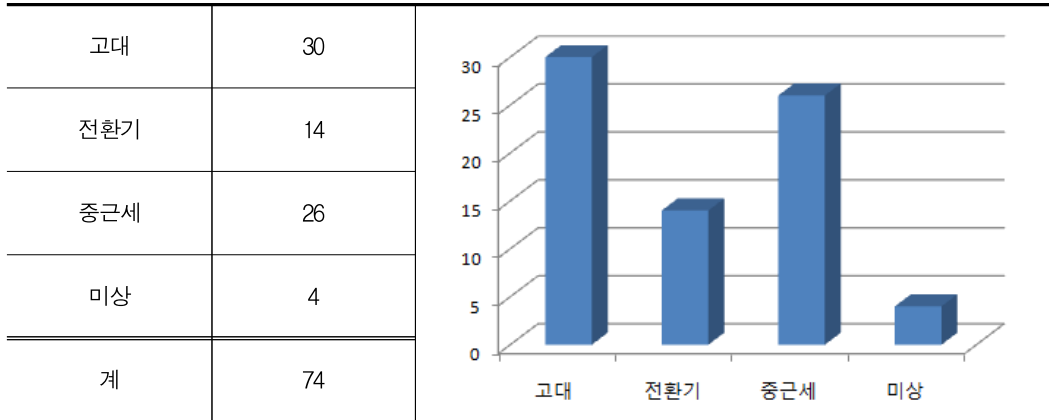
기는 초기철기시대, 삼국시대, 삼국~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고려시대, 통일신라~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려~조선시대, 조선시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사용 시기를 구분한 결과 초기철기시대에는 1개소, 삼국시대에는 15개소, 삼국~통일신라시대에는 6개소, 통일신라시대에는 8개소, 통일신라~고려시대에는 8개소, 통일신라~조선시대 6개소, 고려시대에는 10개소, 고려~조선시대 8개소, 조선시대에는 8개소 유적이 있었다, 그리고 시대를 확정할 수 없는 유적이 4개소가 있었다(표 5).

표 5. 시대별 출토 유적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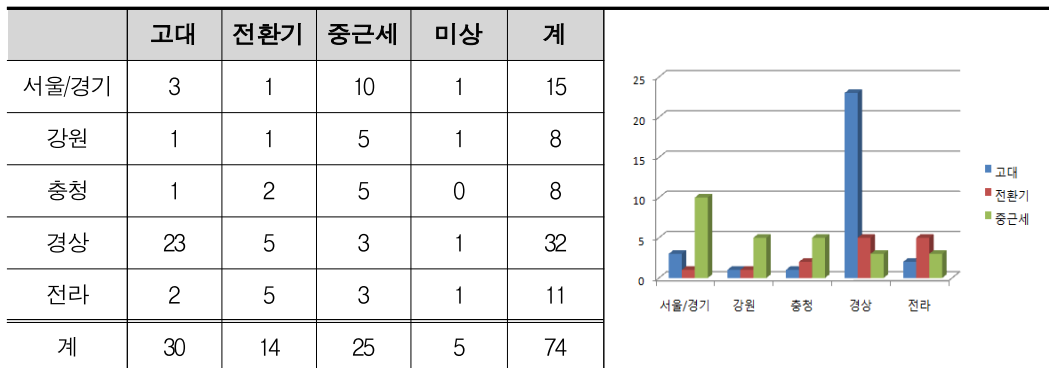
삼국시대가 다른 시대에 비해 높은 출현 비율을 보일 뿐, 초기철기시대를 제외한 다른 시대는 대동소이하다. 이는 통일신라~고려시대, 통일신라~조선, 고려~조선시대 등 장시간에 걸쳐 점유된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특정 시대의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초기철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를 고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중근세로 구분하여 고대와 중근세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신라~고려시대, 통일신라~조선시대는 고대와 중근세로 특정 짓기보다는 일종의 과도기 혹은 전환기로 보고 고대에서 중근세로의 변화 양상의 방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대에 해당되는 유적은 30개소이며, 전환기에 해당되는 유적은 14개소였다. 중근세의 유적은 26개소이며, 시대를 알 수 없는 유적은 4개소이다. 이를 볼 때 고대에서 중근세로 넘어가면서 점차 미니어처 말이 출현하는 유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표 6).

표 6. 시대별 출토 유적 현황(2)



하지만 지역별로 미니어처 말의 사용된 시기를 살펴보면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경기지역은 고대에 해당되는 유적이 3개소, 전환기에 해당되는 유적이 1개소, 중근세에 해당되는 유적이 10개소이다. 강원지역은 고대와 전환기의 유적이 각각 1개소, 중근세의 유적이 5개소이다. 충청은 고대의 유적이 1개소, 전환기의 유적이 2개소, 중근세의 유적이 5개소이다. 경상지역의 경우 고대의 유적이 23개소인데 반해, 전환기의 유적과 중근세의 유적이 각각 5개소와 3개소에 불과하다. 전라지역의 경우 고대의 유적이 2개소, 전환기의 유적이 5개소, 중근세의 유적이 3개소이다. 경상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고대에서 중근세로 가면서 미니어처 말의 출토된 유적의 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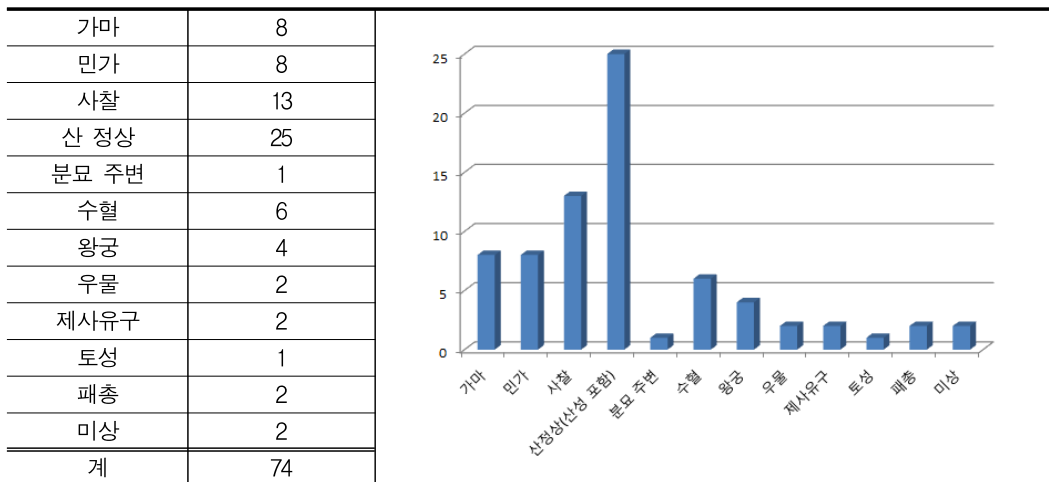
표 7. 지역별 시대별 출토 유적 현황



4. 출토 유적 유형별 현황

미니어처 말은 왕궁 내 건물지 주변이나 연못, 산성 내 건물지나 석축시설, 성벽 내부, 사찰 내 건물지 기단이나 담장 시설 내부, 가마 주변 수혈, 민가 건물지 내부, 우물 등 다양한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유구에서 출토되는 미니어처 말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토 유적의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출토되는 유적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유적 74개소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가마, 민가, 분묘 주변, 사찰, 산 정상(산성 포함), 수혈, 왕궁, 우물, 제사유구, 토성, 패총 등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성을 포함한 산 정상에서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경우가 모두 25개소로 다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사찰 역시 13개소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민가나 생산 유적인 가마는 각각 8개소로 다른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표 8).

표 8. 출토 유적 유형 현황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유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은 4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는데 산 정사부에 위치한 유적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지역은 2가지 유형, 즉 산 정상과 사찰에서만 확인되었다. 충청지역은 3가지의 유형에서만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었는데, 산 정상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경상지역은 11가지 모든 유형에서 미니어처 말이 수습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가마에서 수습된 경우가 높았다. 전라지역은 5가지 유형이 확인되는데, 산 정상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든 유형이 확인되는 경상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산 정상에서 미니어처 말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표 9).

표 9. 지역별 유적 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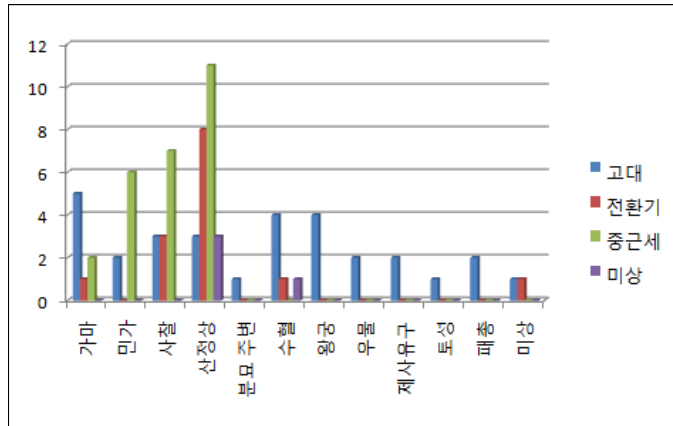
	가마	민가	사찰	산 정상	분묘 주변	수혈	왕궁	우물	제사 유구	토성	패총	미상	계
서울/경기	0	4	3	7	0	0	1	0	0	0	0	0	15
강원	0	0	4	4	0	0	0	0	0	0	0	0	8
충청	0	1	1	6	0	0	0	0	0	0	0	0	8
경상	6	3	4	3	1	4	3	2	1	1	2	2	32
전라	2	0	1	5	0	2	0	0	1	0	0	0	11
계	8	8	13	25	1	6	4	2	2	1	2	2	74

이를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대에는 11가지 유형 모두 확인되며, 가마, 수혈, 왕궁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환기에는 4가지 유형에서 수습되며, 산 정상과 사찰에서 출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근세에는 4가지 유형이 확인되며, 산 정상과 사찰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 정상과 사찰, 민가의 경우 고대부터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었으나, 중근세에 더 많이 점유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가마의 경우 중근세에 접어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제외한 다른 유적 유형에서는 중근세가 되면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지 않는다(표 10, 11).

표 10. 시대별 유적 유형 현황(1)

	가마	민가	사찰	산 정상	분묘 주변	수혈	왕궁	우물	제사 유구	토성	패총	미상	계
고대	5	2	3	3	1	4	4	2	2	1	2	1	30
전환기	1	0	3	8	0	1	0	0	0	0	0	1	14
중근세	2	6	7	11	0	0	0	0	0	0	0	0	26
미상	0	0	0	3	0	1	0	0	0	0	0	0	4
계	8	8	13	25	1	6	4	2	2	1	2	2	74

표 11. 시대별 유적 유형별 현황(2)



지금까지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미니어처 말에 대해 지역별, 시대별, 재질별, 출토 유적 유형별로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니어처 말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확인되었는데, 경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미니어처 말의 재질에 있어서 토제마와 철제마의 출현 비율은 비슷하지만, 강원지역에서는 철제마가, 경상지역과 전라지역에서는 토제마의 출현 비율이 높았다. 미니어처 말이 확인되는 74개 유적에서 토제마(도제마 포함)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는 44개소 대다수이지만, 철제마 단독으로 출토(15개소) 되거나 혹은 토제마와 철제마(청동제마 포함)가 함께 출토(15개소) 되는 경우도 있어 재질에 따른 기능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니어처 말의 사용 시기에 있어 삼국시대가 다른 시대에 비해 높은 출현 비율을 보이는 하지만, 초기철기시대를 제외한 다른 시대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고대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상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고대에서 중근세로 가면서 미니어처 말이 출토된 유적의 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유적 유형은 모두 11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산성을 포함한 산 정상에서 미니어처 말이 확인되는 경우가 다른 유구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 사찰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경상지역은 11가지의 모든 유적 유형에서 미니어처 말이 수습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가마에서 수습된 경우가 높다. 경상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산 정상에서 미니어처 말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고대에는 11가지 유적 유형 모두에서 확인되며 가마, 수혈, 왕궁 등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전환기와 중

근세에는 산 정상과 사찰에서 출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즉 고대에서 중근세로 가면서 미니어처 말은 산 정상, 사찰, 민가 등 특정 유적 유형에 한정되어 나타나지만, 경상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출토되는 유적 수는 증가한다. 이는 미니어처 말을 매개로 한 의례행위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Ⅲ. 형식 분류

1. 형식 분류의 기준

미니어처 말의 형식 분류에 앞서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형식 분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 미니어처 말에 대한 형식 분류는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발굴조사보고서(목포대학교박물관·영암군 1996)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에서는 모두 14점의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었는데, 분류가 가능할 정도로 형식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자는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에서 출토된 미니어처 말을 형태, 제작기법에 따라 토제마 3형식, 철제마는 2형식으로 분류하였다. 토제마의 경우 세부적인 표현이 높은 단계에서 점차 퇴화하는 단계로 변천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제사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토제마의 성형 방식이 단순화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층위상으로는 공반 유물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윤혜(2011)는 일본의 미니어처 말의 형식 분류를 참조하여 중남부 지역에서 출토되는 미니어처 말에 대해 형식을 분류하였다. 먼저 재질에 따라 토제마(도제마 포함)와 철제마(청동제마 포함)로 나누고, 다시 토제마는 마구의 유무, 말의 세부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7형식으로 나누었다. 철제마는 마구의 유무, 주조 혹은 단조 등 제작 방식에 따라 6형식으로 나누었다. 이 방식은 미니어처 말의 표현 방식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나, 말 머리만 확인되는 개체를 1개체로 보고 형식 분류하고 있어서 통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즉 말을 표현하는데 있어 점토를 덧붙이는 경우(AⅡ와 BⅡ)와 선각과 점토를 덧붙이는 경우(AⅢ와 BⅢ), 말의 얼굴에는 선각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선각으로만 세부 표현 형식(AⅠ과 B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표본 집단이 적다는 점에서 말의 머리가지 포함한 것은 이해되지만, 통계상 오류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덩이쇠에 다리를 붙이는 형식(CⅢ)은 부식

되기 쉬운 철기 특성상 쉽게 확인되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의 형식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위의 두 연구 모두 미니어처 말의 속성 중 재질, 제작방법, 표현 방법을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말을 표현하는 방식 중 외형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마구의 장착 여부이다. 또한 철제마의 경우 제작방법, 즉 단조인지 주조인지도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말의 세부 표현에 있어서 선각으로 표현했는지, 점토를 덧대 도드라지게 했는지 역시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윤희의 분류 기준(2011)은 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덩이쇠에 다리를 붙이는 방식은 부식성이 강한 철기 특성상 실견 없이 도면이나 사진만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형식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미니어처 말의 형식 분류는 재질, 마구의 장착 여부, 그리고 토제의 경우 말의 세부 표현 방식, 철제의 경우 제작방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형식 분류

우선 미니어처 말의 재질을 살펴보면, 토제와 철제가 절대다수인데 반해 도제와 청동제는 극소수이다. 도제의 경우 유약을 바른다는 점에서 토제와 차이를 보이지만, 흙으로 빚어 불에 굽는 제작 과정이 토제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청동제 역시 철제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철제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미니어처 말은 토제(A)와 철제(B)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마구 표현 방식에 따라 마구를 표현하지 않은 것(I)과 마구를 표현한 것(II)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말의 세부 표현 방식은 토제(A)의 경우 선각 혹은 채색으로 말의 모습과 마구의 세부를 표현한 것(a)²⁾, 점토를 덧대어 세부를 표현한 것(b), 선각과 점토로 세부를 표현한 것(c), 세부 표현 없이 말의 형태만 단순하게 표현한 것(d)으로 세분할 수 있다. 철제(B)의 경우 주조로 제작된 것(a)과 단조로 제작된 것(b)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미니어처 말을 형식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표 12).

○ 토제품(A)

－ 마구를 표현하지 않은 것(AI)

- AIa : 선각 혹은 채색으로 말의 모습과 마구의 세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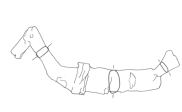
2) 부산 녹산동 청자요지 유적에서 철화로 말의 세부를 표현한 것이 있다.

- AIb : 점토를 붙여서 세부 표현
- AIc : 점토+선각으로 세부 표현
- AId : 세부 표현 없이 말의 형태만 단순하게 표현
- 마구를 표현한 것(AII)
 - AIIa : 선각 혹은 채색으로 말의 모습과 마구의 세부 표현
 - AIIb : 점토를 붙여서 세부 표현
 - AIIc : 점토+선각으로 세부 표현

○ 금속제품(B)

- 마구를 표현하지 않은 것(BI)
 - BIa : 주조품
 - BIb : 단조품
- 마구를 표현한 것(BII)
 - BIIa : 주조품
 - BIIb : 단조품

표 12. 미니어처 말의 형식 분류표

	I				II		
	a	b	c	d	a	b	c
토제 [A]							
철제 [B]	a		b		a		b
							

위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 대상 317점 미니어처 말의 형식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토제마(A)와 철제마(B)는 각각 160점과 157점으로 비슷한 비율이다. 토제마 중 마구를 착장하지 않은 것(AI)과 마구를 착장한 것(AII)는 각각 83점과 77점으로, 마구를 착장하지 않은 것이 다소 많다. 철제마 중 마구를 착장하지 않은 것(BI)과 마구를 착장한 것

(BII)은 각각 73점과 84점으로, 마구를 착장한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마구를 착장하지 않은 토제마는 세부 표현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세부 표현 없이 말의 형태만 단순하게 표현한 것(AId)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점토를 덧대어 표현하는 것(AIb와 AIc)은 미미하다. 마구를 착장한 토제마는 점토를 덧대 세부 표현한 것(AIIb)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마구를 착장하지 않은 철제마는 모두 주조품(BIa)이다. 검토 대상 중 마구를 착장하지 않은 단조품(BIb)은 1점도 없었으나, 국립부여박물관 소장품 중 출토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마구를 착장한 철제마는 주조품(BIIa)가 절대적이며, 마구를 착장한 단조품(BIIb)은 하남 이성산성 출토 2점뿐이다(표 13).

표 13. 미니어처 말의 형식 구성 현황

A							B			
160							157			
I				II			I		II	
83				77			73		84	
a	b	c	d	a	b	c	a	b	a	b
13	4	2	64	18	36	23	73	0	82	2

3. 형식에 따른 시공간적 분포 양상

1) 시간적 분포 양상

검토 대상 317점에 대한 형식 분류 결과 초기철기시대를 제외하고 시대별로 5~8가지 형식이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AId가, 통일신라~고려시대에는 BIIa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BIa는 통일신라~고려시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표 14). 이를 고대와 중근세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대에는 9가지 형식이 보이지만, AId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환기에는 8가지 형식이 보이지만 BIIa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중근세에는 8가지 형식이 보이지만 BIa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표 15). AIc와 BIIb는 고대에는 존재하였던 형식이지만, 중근세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반면 AIb는 고대에 없었던 형식이지만, 중근세에는 새롭게 보이는 형식이다. AIc는 삼국 시대에 1점, 통일신라시대 1점이 확인되었으며, BIIb는 삼국시대에 2점이 확인될 뿐, 이

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AIIb는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처음 확인되는 것으로 이 형식의 상한은 빨라야 통일신라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들 형식이 시간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 AIIa와 BIIa, BIIa는 고대에서 중근세로 가면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한편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형식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이윤희 2011)와는 다르게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다.

표 14. 시대별 형식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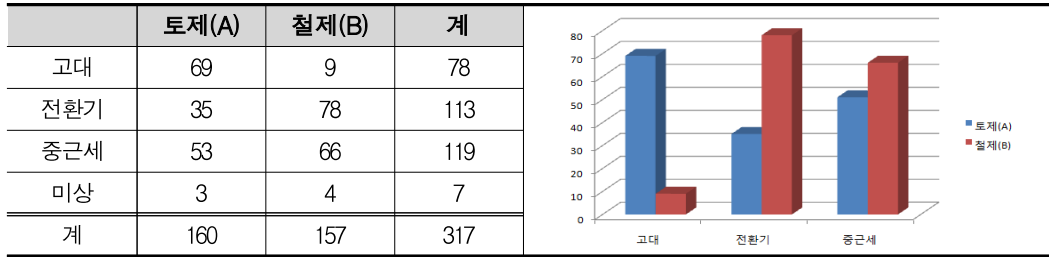
	Ala	Alb	Alc	Ald	Alla	Allb	Allc	Bla	BIIb	BIIa	BIIb	계
초기철기	0	0	0	2	0	0	0	0	0	0	0	2
삼국	1	0	1	26	2	4	7	0	0	4	2	47
삼국~통일신라	6	0	1	4	0	8	4	1	0	0	0	24
통일신라	0	0	0	0	1	1	1	1	0	1	0	5
통일신라~고려	3	1	0	8	2	7	3	23	0	46	0	93
통일신라~조선	0	1	0	2	1	4	3	4	0	5	0	20
고려	3	1	0	10	11	2	1	22	0	12	0	62
고려~조선	0	1	0	7	0	3	2	7	0	9	0	29
조선	0	0	0	4	0	6	2	12	0	4	0	28
미상	0	0	0	1	1	1	0	3	0	1	0	7
계	13	4	2	64	18	36	23	73	0	82	2	317

표 15. 시대별 형식 현황(2)

	Ala	Alb	Alc	Ald	Alla	Allb	Allc	Bla	BIIb	BIIa	BIIb	계
고대	7	0	2	32	3	13	12	2	0	5	2	78
전환기	3	2	0	10	3	11	6	27	0	51	0	113
중근세	3	2	0	21	11	11	5	41	0	25	0	119
미상	0	0	0	1	1	1	0	3	0	1	0	7
계	13	4	2	64	18	36	23	73	0	82	2	317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질의 변화도 간취된다. 고대에는 토제품이 압도적이지만, 중근세가 되면 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시간에 따라 토제품에서 철제품으로 변화가 읽힌다(표 16).

표 16. 시대별 재질 변화 양상



2) 공간적 분포 양상

검토 대상 317점에 대한 형식 분류 결과 전국적 분포 상황을 볼 때, 단조로 제작된 철제마 중 마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BIb를 제외하고 10가지 형식 모두 확인된다. 특히 BIIa와 BIa, AId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경기지역은 8가지 형식이 확인되는데 BIa와 AId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강원지역과 충청지역, 전라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BIIa는 상대적으로 낮다. 강원지역은 6가지 형식이 확인되는데 토제마의 각 형식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철제마인 BIIa와 BIa가 출현 빈도가 월등히 높다. 충청지역은 6가지 형식이 확인되는데 AIIb와 BIIa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경상지역은 8가지 형식이 확인되는데 AId가 압도적이다. 전라지역은 모두 8가지 형식이 확인되는데 AId와 BIIa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형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7, 19).

표 17. 지역별 형식 현황

	A1a	A1b	A1c	A1d	A11a	A11b	A11c	B1a	B1b	B11a	B11b	계
서울/경기	1	0	0	13	5	5	6	22	0	7	2	61
강원	0	1	0	1	9	3	0	32	0	44	0	90
충청	0	0	0	2	0	7	1	3	0	5	0	18
경상	8	0	2	32	2	11	9	8	0	12	0	84
전라	4	3	0	16	2	10	7	8	0	14	0	64
전국	13	4	2	64	18	36	23	73	0	82	2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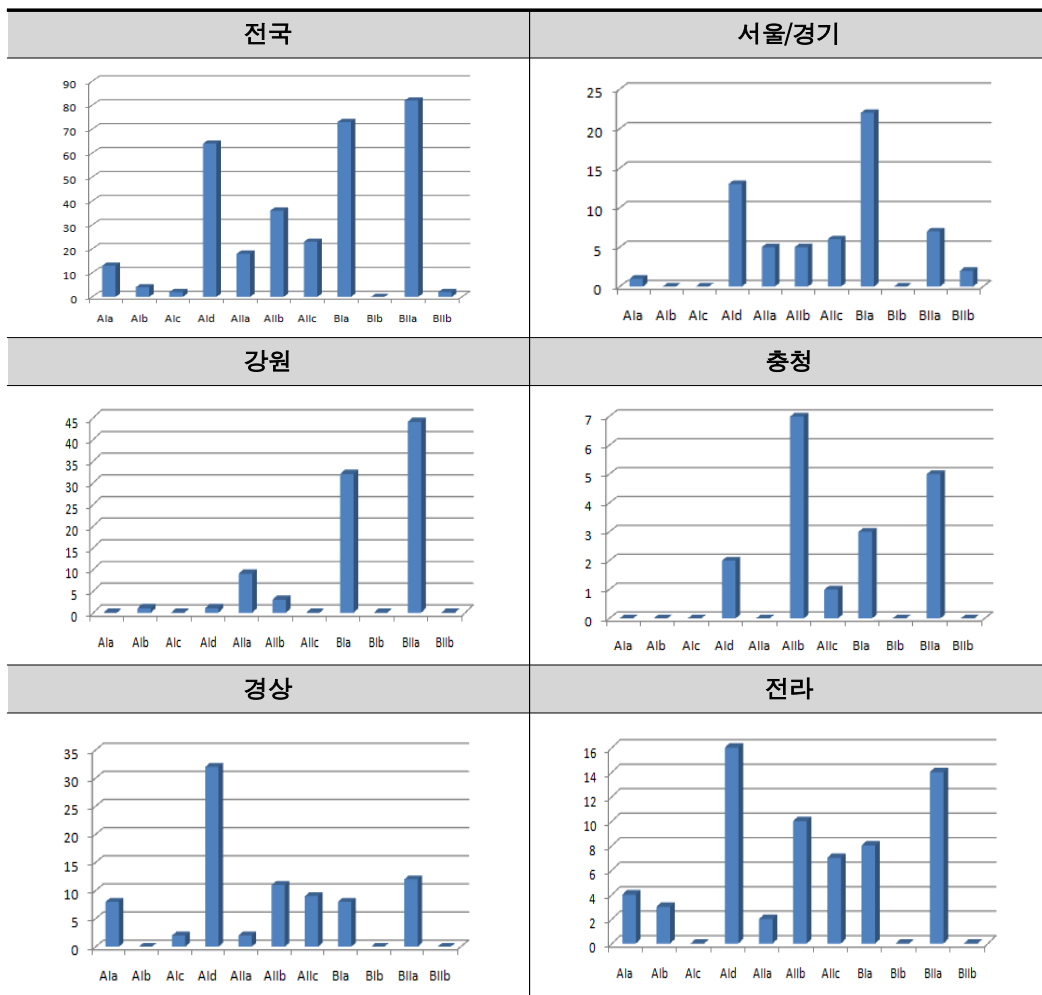
각 형식이 출현하는 유적을 살펴보면, AId가 5개 지역 26개소 유적에서 확인되어 가장 선호되었던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BIIa도 5개 지역 20개소 유적에서 확인된다.

이 밖에도 AIIb, BIa, AIIc가 다른 형식에 비해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어 선호되었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AIa와 BIIa는 고대부터 중근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옛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였던 형식으로 판단된다(표 18).

표 18. 형식별 출현 유적 현황

	AIa	AIb	AIc	AId	AIla	AIlb	AIlc	BIa	BIb	BIIa	BIIb
지역	3	2	1	5	4	5	4	5	0	5	1
유적	8	4	2	26	9	19	15	19	0	2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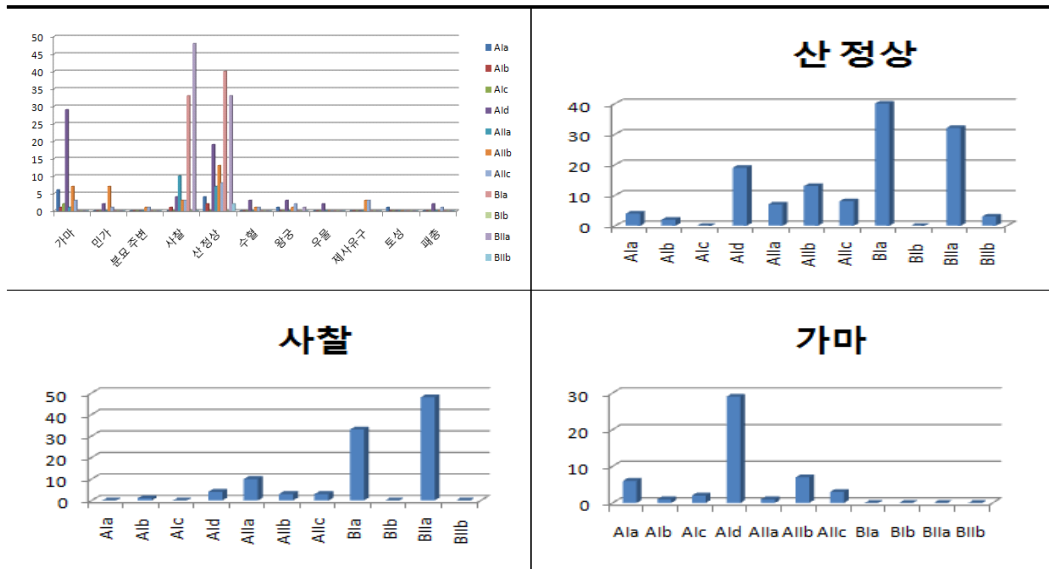
표 19. 지역별 형식 분포 현황



3) 유적 유형별 분포 양상

유적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 정상외의 경우 AId와 BIb를 제외한 9개의 형식이 확인되는데, BIa와 BIIa가 상대적으 높은 비율을 보인다. 사찰의 경우 7개의 형식이 확인된다. 그중 철제품인 BIIa와 BIa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가마의 경우 7개의 형식이 확인되는데, 그중 토제품인 AId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표 20).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에 따라 토제품에서 철제품으로 변화하는 경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토제품 중심의 가마는 고대에 높은 비율을 보이며, 철제품 중심의 산 정상과 사찰은 중근세에 높은 점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

표 20. 유형별 분포 현황



지금까지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미니어치 말을 재질, 마구의 장착 여부, 그리고 말의 세부 표현 방식 및 제작방법을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하였다. 모두 11개 형식으로 분류되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토제품에서 철제품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일부 형식은 시간적 속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형식적 다양성이 점차 줄어들었음을 밝혔다. 형식별 공간 분포 분석 결과, 각 지역마다 형식별 출현 빈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형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고대부터 중근세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세부 표현 없이 말의 형태만 단순하게 표현한 토제마(AId)와 마구를 장착한 주조 철제마(BIIa)가 옛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였던

형식으로 판단된다. 유적 유형에 있어서는 토제품 중심의 가마는 고대에, 철제품 중심의 산 정상과 사찰은 중세에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IV. 민속신앙과 미니어처 말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말은 힘이 넘치고 빠르며 생동감을 지닌 강한 동물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 또한 말은 인간이 사는 지상과 신들이 사는 천상을 연결하는 영험한 동물로 신성시되어왔다. 이러한 믿음은 여러 종류의 청동 의기가 확인되는 선사시대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며, 건국신화와 설화, 민속신앙 등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된다(국립제주박물관 2002; 국립제주박물관 2014). 또한 말은 주인의 무덤에 함께 묻히기도 하며 특수한 제의의 희생물로도 사용되었다(권오영 2001; 김건수 2002; 이장웅 2017). 일반적으로 고고학 현장에서 확인되는 미니어처 말은 특수한 용도, 특히 제의에 사용되었던 의기로 해석되고 있다.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은 고고학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속자료는 훨씬 더 많다. 특히 미니어처 말은 동제당에 봉안된 유일한 동물상으로 고대 천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미니어처 말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민속학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김태곤(1983)은 미니어처 말 봉안이 국사당 신앙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로 보았으며, 천진기(1990)는 미니어처 말 봉안 사례와 유래에 대해 소개하였다. 표인주(1996)는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출토 미니어처 말을 신앙적 용도로 파악하고 그 성격을 신체(神體) 혹은 신승물(神乘物)로 봉헌된 것으로 보았다. 김태우(2001)는 동제당에 봉안되는 미니어처 말의 사례 연구를 통해 대장장이 집단의 말 숭배 신앙이 마을 공동체 신앙인 국사당 신앙 혹은 서낭당 신앙에 수용되었다고 보았다. 강봉룡(2006)은 마신앙의 근원을 고대 천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며, 도서·연안지역의 천마신앙은 주로 뱃사람들의 안전항해와 운수대통의 염원과 관련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미니어처 말을 산악신앙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분석에서 보았듯이 미니어처 말은 다양한 유적 유형에서 확인된다. 특히 고대에는 필자가 분류한 11개 유적 유형 모두에서 확인된다. 그러한 중근세로 접어들면 산 정상을 비롯해 사찰, 가마, 민가 등 4개의 유형에서만 확인된다(표 21). 그중 미니어처 말은 산 정상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다. 반면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유적의 수는 가마는

점차 감소하지만 산 정상과 사찰, 민가의 경우 증가한다. 즉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유적 유형은 감소하지만, 오히려 유적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 정상은 고려시대 이후 유적의 수가 급증한다(표 22).

표 21. 유적 유형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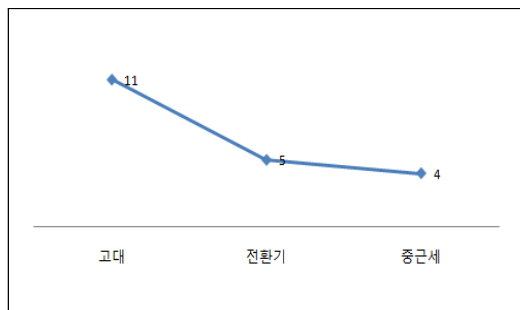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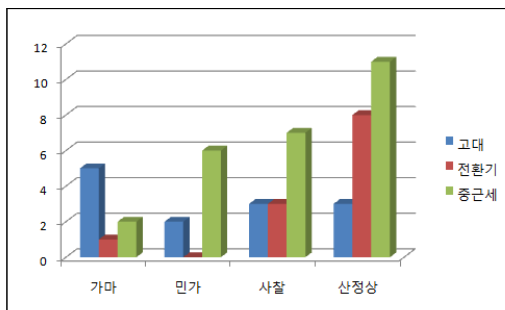


표 22. 유적 유형별 출토 현황



이러한 현상은 고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제(馬祭)가 존재하였으나, 통일신라 이후 중국식 제사 방식 수용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국 양식으로, 민간에서는 이전의 전통양식인 이중구조로 병존하였다는 기존의 견해(천진기 1990)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봉룡(2006)은 산악신앙의 형태로 남아 있는 철마신앙이 산악지역과 도서·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이유를 조선시대에 유교적 교화(教化)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미쳤기 때문으로 보았다. 반면 강성복(2009)은 산신제(山神祭) 혹은 국사제(國師祭)로 대표되는 동제가 조선시대 이후 남성 중심의 유교식 동제로 전환되어 성행한 것으로 보았다. 즉 산악신앙이 유교식 제사 형태로 흡수되어 조선시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산악신앙이 유교적 영향 여부를 떠나 조선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민간에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산악신앙의 유래에 대해 정동락(2016)은 고조선의 산악신앙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편 2009)에 의하면, 국사당의 국사(國師)는 ‘구수(龜首)→국수(국시)→국사(國師)’의 과정을 거쳐 한자 취음 표기된 것으로, 신을 뜻하는 용어와 상통하여 구수봉·국시봉·국사봉은 신산(神山) 마루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단군신화에서 천상신이 하강한 신단수가 있는 태백산정, 가야의 시조가 강림한 구지봉, 신라의 육촌장이 하강한 산정 등과 맥을 함께하는 천상신의 강림을 의미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국사당은 마을 사람들이 지상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마을의 높은 산 정상에 하늘의

신과 교섭하는 제의의 장소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 정상의 제단 혹은 제당에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말, 즉 천마를 봉헌한 것이 미니어처 말일 가능성이 높다. 즉 천상의 신과 지상의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말인 것이다. 신체(神體)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승물(神乘物)로서의 미니어처 말을 봉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산성에서 확인되는 미니어처 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성에서 출토되는 미니어처 말은 대체로 산성 내 석축시설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산성 내 건물지에서도 확인된다. 기존에는 산성에서 확인되는 미니어처 말을 전쟁의례와 관련된 희생제물 혹은 산신제에 쓰였던 의례 용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왔다(장제근 2002). 그러나 많은 산성 유적들이 고려시대 이후 마을의 공동의례 장소인 국사당을 설치하였던 장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니어처 말이 단순히 전쟁의례나 산신제에 사용되었던 것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미니어처 말이 반드시 신승물로서만 역할을 한 것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미니어처 말은 고대에는 다양한 유형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왕궁이나 사찰, 민가의 건물지 내부 혹은 기단, 담장 내부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성벽 주변 혹은 내부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출토 현상은 토목공사와 관련된 의례행위 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된 미니어처 말은 그 자체로 힘을 지닌 존재로서 말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힘의 원천은 바로 신이 타는 동물, 신승물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즉 말은 그 자체로 기원의 대상이 아니라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상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남한지역에서 출토되는 미니어처 말에 대해 지역별, 시대별, 재질별, 출토 유적 유형별로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니어처 말은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확인되었는데, 경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미니어처 말의 재질에 있어서 토제마와 철제마는 비슷한 비율로 출토되었다. 토제마가 단독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철제마가 단독 혹은 토제마와 함께 출토되는 경우도 있어 재질에 따른 기능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대보다는 중근세에 철제마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니어처 말은 재질, 마구의 장착 여부, 그리고 세부 표현 방식 및

제작방법을 기준으로 11개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는 시간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며,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형식적 다양성이 점차 줄어들었음을 밝혔다. 형식별 공간 분포 분석 결과, 각 지역마다 형식별 출현 빈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형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세부 표현 없이 말의 형태만 단순하게 표현한 토제마(AId)와 마구를 장착한 주조 철제마(BIIa)가 옛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였던 형식으로 판단된다. 미니어처 말의 사용 시기에 있어 삼국시대가 다른 시대에 비해 높은 출현 비율을 보이며, 중근세에 들어서면 미니어처 말이 출토되는 유적 유형은 감소하지만 유적의 수는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중국식 제사 방식 도입으로 국가적 차원의 마제와 함께 민간 차원의 마제가 진행되는 이중적 구조로 병존했다는 기존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대에는 다양한 유형의 유적에서 미니어처 말이 확인되는데 반해, 중근세로 접어들면 산 정상과 사찰 등 특정한 유형의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그중 미니어처 말은 산 정상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다. 이렇듯 주로 산 정상에서 미니어처 말이 발견되는 것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산악신앙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하늘의 신이 강림하는 산 정상부에 제단 혹은 제당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미니어처 말은 천상의 신과 지상의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신승물로서 국사당에 봉헌된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은 국립전주박물관이 진행하는 ‘제사유적/유물 자료집’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미니어처 말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동안 고고학 조사를 거쳐 확인되는 미니어처 말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민속신앙의 사례 등을 근거로 막연히 추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미니어처 말을 고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가 기존의 연구 성과와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막연한 추론에서 벗어나 고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다. 다만 논문 작성 시 여건상 미니어처 말과 공반하는 유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봉룡, 2006, 「한국 서남해 도서·연안지역의 철마신앙」, 『도서문화』 27, 목포대학교 도서관 연구소.
- 강성복, 2009,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립민속박물관 편, 2009,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전주박물관, 2016, 『미니어처 말馬 1』 제사 유적/유물 자료집 2, 국립전주박물관.
- 국립제주박물관, 2002, 『고대의 말』 특별전 도록, 국립제주박물관.
- 국립제주박물관, 2014, 『한국의 馬 시공을 달리다』 특별전 도록, 국립제주박물관.
- 권오영, 2001,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 출토된 말뼈의 의미」, 『마사박물관지』, 한국마사회.
- 김건수, 2002, 「우리나라 고대의 말」, 『고대의 말』 특별전 도록, 국립제주박물관.
- 김태곤, 1983,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 김태우, 2001, 「동제당 철마 봉안 사례 연구」, 『한국민속학』 34, 한국민속학회.
- 목포대학교박물관·영암군, 1996,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 민덕식, 2002, 「발굴조사된 제사용 모조마에 대한 분석」, 『사학연구』 66, 한국사학회.
- 이윤혜, 2011, 「한반도 중남부지역 출토 의례용 모조마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인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장웅, 2017, 「문헌에 나타난 한국 고대 동물 관념과 의례」,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 장제근, 2002, 「마형토기 출토 제사유적」, 『고대의 말』 특별전 도록, 국립제주박물관.
- 정동락, 2016, 「신라의 加良岳 제사와 가야산 牛頭峰 유적」, 『민족문화논총』 6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천진기, 1990, 「말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과 태도」, 『말의 생태와 관련 민속』 제16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국립민속박물관.
- 표인주, 1996, 「말의 상징적인 의미와 모조품 마류의 신앙적 용도」,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영암군.

【Abstract】

A Pilot Study on Miniature Horse Figures

Seonghyeok Yang*

When an artifact that was likely not used in the common daily life is found, we often tend to interpret it as a ritual objects holding some kind of symbols. This is also true in the case of miniature horse figures made of clay, metal, etc. Miniature horse figures are usually considered as worship objects or ritual objects based on the excavation context or ethnic customs of the area. It is highly probable, but in many cases this conclusion is simply assumed without any verification process. Moreover archaeological approach was not applied in those cases.

This study examined the manufacturing procedures of the miniature horses excavated from archaeological sites and made a typological classification to understand any temporal and spacial patterns. The results of the study verified that ancient periods favored the use clay for making miniature horse figures, and the use of iron became relatively common in the medieval and later periods. However, it disproved the conclusion of former studies that claimed typological diversity increased as time passed, but found that the diversity, in fact, decreased as time passed. In addition, the number of sites in which the miniature horses were discovered increased throughout the medieval and modern times; however, many were in spatially restricted areas such as mountain tops or in rural areas. This implies that there was a certain change regarding the horse ritual, supporting the idea that official government-level horse rituals gave way to Confucian rites after the Goryeo Dynasty, and instead became a popularized folk belief. It also suggests that horse rituals were related with ancient mountain religion or perhaps religious services for the mountain god(*Guksadang*) since many miniature horses were discovered at the top of mountains and mountain fortress walls.

Key words : miniature horse figures, ritual objects, typological classification, horse ritual, mountain religion

* Jeonju National Museum

[별표 1] 미니어처 말 출토 유적 현황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별 출토 현황			
						토	도	철	청동
1	서울/경기	서린동유적	조선	민가	민가 건축물	○	X	X	X
2	서울/경기	신문로유적	조선	민가	민가 내 수혈	○	X	X	X
3	서울/경기	청진1지구유적	조선	민가	민가내	○	○	X	X
4	서울/경기	청진5지구유적	조선	민가	민가 내 우물 주변	○	X	X	X
5	서울/경기	풍납토성 경당지구	삼국	왕궁	왕궁 내 수혈	○	X	X	X
6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	X	○	X
7	서울/경기	남양주 국사봉 보루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	X	X	X
8	서울/경기	안양 안양사지	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X	X	○	X
9	서울/경기	양주 대모산성	고려	산 정상	산성 내 사찰 건물지	○	X	X	○
10	서울/경기	여주 고달사지	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주변	X	X	○	X
11	서울/경기	이천 설봉산성	고려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	X	○	X
12	서울/경기	이천 창전동 유적	통일신라	사찰	사찰 인근	X	X	○	X
13	서울/경기	포천 반월산성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	X	○	X
14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	X	○	X
15	서울/경기	화성 당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성 성벽 석렬 내부	○	X	○	X
16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담장, 축대	○	X	○	X
17	강원	강릉 흥례동 유적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	X	X	X
18	강원	속초 청대산 산림욕장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X	X	○	X
19	강원	원주 거둔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X	X	○	X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별 출토 현황			
						토	도	철	청동
20	강원	인제 한계사지	고려	사찰	사찰 석탑 주변	X	X	O	X
21	강원	철원 성산성	삼국~통일신라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X	X	O	X
22	강원	철원 어음성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O	X	O	X
23	강원	태백태백산천왕단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제단	X	X	O	X
24	충청	대전 국사봉 유적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O	X	X	X
25	충청	대전 보문산성	고려	산 정상	산성 내 문지	X	X	O	X
26	충청	부여 무량사 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O	X	O	X
27	충청	천안 독정리 유적	조선	민가	민가 건물지 내 배수로	O	X	X	X
28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성벽, 우물지, 석축시설	O	X	O	X
29	충청	보은 삼년산성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성 내 연못지	O	X	X	X
30	충청	제천 청풍 망월산성	삼국	산 정상	산 정상	O	X	X	X
31	충청	청주 상당산성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O	X	X	X
32	경상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	삼국	우물	우물, 습지	O	X	X	X
33	경상	대구 사수동 563번지 유적	삼국~통일신라	분묘주변	석곽묘 주변	O	X	X	X
34	경상	대구 시지동 유적	통일신라~조선	수혈	수혈 주변	O	X	X	X
35	경상	대구 시지의 문화유적	통일신라~고려	미상	미상	O	X	X	X
36	경상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	삼국	수혈	수혈	O	X	X	X
37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O	X	X	X
38	경상	경산 현내리 I 유적	조선	민가	민가 축대	O	X	X	X
39	경상	경주 경미장 예정부지 C-1지구	삼국	가마	가마 주변 회구, 수혈	O	X	X	X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별 출토 현황			
						토	도	철	청동
40	경상	경주 나정 유적	삼국~통일신라	제사유구	제사 건축물	O	X	X	X
41	경상	경주 동궁과 월지	삼국~통일신라	왕궁	왕궁 내 건물지 주변	O	X	X	X
42	경상	경주 복문로 왕경 유적	통일신라	우물	우물, 수혈	O	X	X	X
43	경상	경주 손곡동, 물천리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O	X	X	X
44	경상	경주 안압지	통일신라	왕궁	왕궁 내 연못	X	X	O	X
45	경상	경주 월성 해자	삼국~통일신라	왕궁	왕궁 주변 해자	O	X	X	X
46	경상	경주 전 인왕사지	통일신라	사찰	사찰 건물지, 담장	O	X	X	X
47	경상	경주 천관사지	통일신라	사찰	사찰 건물지	O	X	X	X
48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O	X	X	X
49	경상	경주 황남동 신라건물지	통일신라	민가	민가 건축물 적심석	O	X	X	X
50	경상	포항 월포리 유적	통일신라	민가	민가 건축물	O	X	X	X
51	경상	부산 녹산동 청자요지	고려	가마	가마 주변 폐기장, 수혈	O	X	X	X
52	경상	부산 낙민동 패총	삼국	패총	패총	O	X	X	X
53	경상	울산 조일리 유적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X	X	O	X
54	경상	거창 거열산성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X	X	O	X
55	경상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내 담장	X	X	O	X
56	경상	김해 봉황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가마 주변 수혈	O	X	X	X
57	경상	김해 봉황토성	삼국	토성	토성 성벽 내부	O	X	X	X
58	경상	김해 부원동 유적	초기철기	패총	패총	O	X	X	X
59	경상	창원 봉림동 유적	삼국	수혈	수혈	O	X	X	X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별 출토 현황			
						토	도	철	청동
60	경상	창원 외동 유적	삼국	수혈	수혈	O	X	X	X
61	경상	통영 달골산 유적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문지	X	X	O	X
62	경상	함안 신음리 유적	통일신라	미상	미상	O	X	X	X
63	경상	합천 백암리 폐사지	통일신라~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주변	X	X	O	X
64	전라	고창 부곡리 증산유적	통일신라~고려	가마	가마 주변 수혈/민가 건축물 계단	O	X	X	X
65	전라	남원 세전리 유적	미상	수혈	수혈 주변	O	X	X	X
66	전라	부안 죽막동 유적	삼국	제사유구	제사유구 주변	O	X	X	X
67	전라	익산 미륵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O	X	X	X
68	전라	강진 삼흥리 요지	고려	가마	가마	O	X	X	X
69	전라	광양 마로산성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O	X	O	O
70	전라	나주 덕림 유적	삼국	수혈	수혈	O	X	X	X
71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O	X	O	X
72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O	X	O	X
73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O	X	O	X
74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O	X	O	X

[별표 2] 미니어처 말 형식 현황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1	서울/경기	서린동유적	조선	민가	민가 건축물	토	Allc
2	서울/경기	서린동유적	조선	민가	민가 건축물	토	Allb
3	서울/경기	신문로유적	조선	민가	민가 내 수혈	토	Allb
4	서울/경기	청진1지구유적	조선	민가	민가내	도	Ald
5	서울/경기	청진1지구유적	조선	민가	민가내	토	Allb
6	서울/경기	청진1지구유적	조선	민가	민가내	토	Allb
7	서울/경기	청진5지구유적	조선	민가	민가 내 우물 주변	토	Allb
8	서울/경기	풍납토성 경당지구	삼국	왕궁	왕궁 내 수혈	토	Ald
9	서울/경기	풍납토성 경당지구	삼국	왕궁	왕궁 내 수혈	토	Ald
10	서울/경기	풍납토성 경당지구	삼국	왕궁	왕궁 내 수혈	토	Ald
11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토	Allc
12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토	Ald
13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토	Ald
14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15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16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17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18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19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20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21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22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23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24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25	서울/경기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유적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26	서울/경기	남양주 국사봉 보루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a
27	서울/경기	안양 안양사지	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28	서울/경기	안양 안양사지	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29	서울/경기	양주 대모산성	고려	산 정상	산성 내 사찰 건물지	토	Ala
30	서울/경기	양주 대모산성	고려	산 정상	산성 내 사찰 건물지	토	Ald
31	서울/경기	양주 대모산성	고려	산 정상	산성 내 사찰 건물지	청동	Bla
32	서울/경기	여주 고달사지	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주변	철	Bla
33	서울/경기	여주 고달사지	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주변	철	BIlb
34	서울/경기	이천 설봉산성	고려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철	Bla
35	서울/경기	이천 설봉산성	고려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철	Bla
36	서울/경기	이천 설봉산성	고려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철	Bla
37	서울/경기	이천 설봉산성	고려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토	Allc
38	서울/경기	이천 설봉산성	고려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토	Alla
39	서울/경기	이천 창전동 유적	통일신라	사찰	사찰 인근	철	Bla
40	서울/경기	포천 반월산성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도	Ald
41	서울/경기	포천 반월산성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도	Ald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42	서울/경기	포천 반월산성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토	Ald
43	서울/경기	포천 반월산성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철	Bla
44	서울/경기	포천 반월산성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철	Bla
45	서울/경기	포천 반월산성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철	Bla
46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토	Alla
47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토	Alla
48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토	Ald
49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토	Ald
50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철	BIlb
51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철	BIlb
52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철	BIlb
53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철	BIlb
54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철	BIlb
55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철	BIlb
56	서울/경기	하남 이성산성	삼국	산 정상	산성 내 신앙유적	토	Ald
57	서울/경기	화성 당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성 성벽 석렬 내부	철	Bla
58	서울/경기	화성 당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성 성벽 석렬 내부	토	Alla
59	서울/경기	화성 당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성 성벽 석렬 내부	토	Allc
60	서울/경기	화성 당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성 성벽 석렬 내부	토	Allc
61	서울/경기	화성 당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성 성벽 석렬 내부	토	Allc
62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담장	토	Ald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63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담장	철	Bla
64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b
65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b
66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a
67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a
68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a
69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a
70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a
71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a
72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a
73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a
74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토	Alla
75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76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77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78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79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80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81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82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83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84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85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86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87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88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89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90	강원	강릉 굴산사지	고려	사찰	사찰 내 축대	철	Bla
91	강원	강릉 홍제동 유적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토	Alb
92	강원	속초 청대산 산림욕장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Ib
93	강원	속초 청대산 산림욕장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94	강원	속초 청대산 산림욕장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Ib
95	강원	속초 청대산 산림욕장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Ib
96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Ib
97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Ib
98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Ib
99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Ib
100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Ib
101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Ib
102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Ib
103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Ib
104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Ib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105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06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07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08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09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10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11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12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13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14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15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16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17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18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19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20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21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22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23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124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25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Ib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126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27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28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29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30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31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32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33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34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35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36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37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38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39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40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41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42	강원	원주 거돈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la
143	강원	인제 한계사지	고려	사찰	사찰 석탑 주변	철	BIlb
144	강원	철원 성산성	삼국~통일신라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145	강원	철원 어음성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철	BIlb
146	강원	철원 어음성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토	AIlb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147	강원	철원 어음성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철	Bla
148	강원	태백 태백산 천왕단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제단	철	BIlb
149	강원	태백 태백산 천왕단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제단	철	BIlb
150	강원	태백 태백산 천왕단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제단	철	BIlb
151	강원	태백 태백산 천왕단	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제단	철	BIlb
152	충청	대전 국사봉 유적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토	AIlb
153	충청	대전 국사봉 유적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토	AIlb
154	충청	대전 보문산성	고려	산 정상	산성 내 문지	철	BIlb
155	충청	부여 무량사 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토	AIlc
156	충청	부여 무량사 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토	Ald
157	충청	부여 무량사 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철	BIlb
158	충청	천안 독정리 유적	조선	민가	민가 건물지 내 배수로	토	AIlb
159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성벽 주변	토	AIlb
160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우물지 주변	토	AIlb
161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토	AIlb
162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토	AIlb
163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Ilb
164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165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Ilb
166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Ilb
167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168	충청	천안 위례산성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la
169	충청	청주 상당산성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토	Ald
170	경상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	삼국	우물	우물, 습지	토	Ald
171	경상	대구 봉무동 365-9번지 유적	삼국	우물	우물, 습지	토	Ald
172	경상	대구 사수동 563번지 유적	삼국~통일신라	분묘주변	석곽묘 주변	토	Allb
173	경상	대구 사수동 563번지 유적	삼국~통일신라	분묘주변	석곽묘 주변	토	Allc
174	경상	대구 시지동 유적	통일신라~조선	수혈	수혈 주변	토	Allb
175	경상	대구 시지의 문화유적	통일신라~고려	미상	미상	도	Ala
176	경상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	삼국	수혈	수혈	토	Ald
177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토	Ald
178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토	Ald
179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토	Ald
180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구	토	Ald
181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구	토	Ald
182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폐기장	토	Ald
183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ld
184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토	Ald
185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ld
186	경상	대구 옥수동/경산 옥산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ld
187	경상	경산 현내리 I 유적	조선	민가	민가 축대	토	Ald
188	경상	경주 동궁과 월지	삼국~통일신라	왕궁	왕궁 내 건물지 주변	토	Allb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189	경상	경주 손곡동, 물천리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llc
190	경상	경주 손곡동, 물천리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ld
191	경상	경주 손곡동, 물천리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llb
192	경상	경주 손곡동, 물천리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ld
193	경상	경주 손곡동, 물천리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llc
194	경상	경주 손곡동, 물천리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ld
195	경상	경주 손곡동, 물천리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토	Ald
196	경상	경주 안압지	통일신라	왕궁	왕궁 내 연못	철	BIlb
197	경상	경주 월성 해자	삼국~통일신라	왕궁	왕궁 주변 해자	토	Allc
198	경상	경주 월성 해자	삼국~통일신라	왕궁	왕궁 주변 해자	토	Ala
199	경상	경주 월성 해자	삼국~통일신라	왕궁	왕궁 주변 해자	토	Allc
200	경상	경주 전 인용사지	통일신라	사찰	사찰 건물지	토	Alla
201	경상	경주 전 인용사지	통일신라	사찰	사찰 담장	토	Allc
202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la
203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llb
204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llc
205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ld
206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ld
207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ld
208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llb
209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호구	토	Alc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210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1a
211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11b
212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11b
213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1a
214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1a
215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11b
216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11b
217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1a
218	경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삼국~통일신라	가마	가마 주변 자연수로	토	A1d
219	경상	경주 황남동 신라건물지	통일신라	민가	민가 건축물 적심석	토	A11b
220	경상	부산 녹산동 청자요지	고려	가마	가마 주변 폐기장	토	A1d
221	경상	부산 녹산동 청자요지	고려	가마	가마 주변 폐기장	토	A1d
222	경상	부산 녹산동 청자요지	고려	가마	가마 주변 폐기장	토	A1d
223	경상	부산 녹산동 청자요지	고려	가마	가마 주변 폐기장	토	A1d
224	경상	부산 녹산동 청자요지	고려	가마	가마 주변 폐기장	토	A11a
225	경상	부산 녹산동 청자요지	고려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1d
226	경상	부산 낙민동 패총	삼국	패총	패총	토	A11c
227	경상	울산 조일리 유적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철	B1a
228	경상	울산 조일리 유적	미상	산 정상	산 정상	철	B1a
229	경상	거창 거열산성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철	B1a
230	경상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내 담장	철	B11b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231	경상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내 담장	철	BIlb
232	경상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내 담장	철	BIlb
233	경상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통일신라~고려	사찰	사찰 내 담장	철	BIlb
234	경상	김해 봉황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토	AId
235	경상	김해 봉황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수혈	토	AId
236	경상	김해 봉황동 유적	삼국	가마	가마 주변 저습지	토	Alc
237	경상	김해 봉황토성	삼국	토성	토성 성벽 내부	토	Ala
238	경상	김해 부원동 유적	초기철기	패총	패총	토	AId
239	경상	김해 부원동 유적	초기철기	패총	패총	토	AId
240	경상	창원 봉림동 유적	삼국	수혈	수혈	토	AlIc
241	경상	창원 봉림동 유적	삼국	수혈	수혈	토	AId
242	경상	통영 달골산 유적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건물지, 문지	철	BIlb
243	경상	통영 달골산 유적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문지	철	Bla
244	경상	통영 달골산 유적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문지	철	Bla
245	경상	통영 달골산 유적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문지	철	Bla
246	경상	통영 달골산 유적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문지	철	BIlb
247	경상	통영 달골산 유적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Ilb
248	경상	통영 달골산 유적	고려~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석축시설	철	BIlb
249	경상	합천 백암리 폐사지	통일신라~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주변	철	BIlb
250	경상	합천 백암리 폐사지	통일신라~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주변	철	BIlb
251	경상	합천 백암리 폐사지	통일신라~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주변	철	BIlb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252	경상	합천 백암리 폐사지	통일신라~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주변	철	Bla
253	경상	합천 백암리 폐사지	통일신라~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주변	철	Bla
254	전라	고창 부곡리 증산유적	통일신라~고려	가마	가마 주변 수혈/민가 건축물 계단	토	Ald
255	전라	고창 부곡리 증산유적	통일신라~고려	가마	가마 주변 수혈/민가 건축물 계단	토	Alb
256	전라	남원 세전리 유적	미상	수혈	수혈 주변	토	Ald
257	전라	부안 죽막동 유적	삼국	제사유구	제사유구 주변	토	Allc
258	전라	부안 죽막동 유적	삼국	제사유구	제사유구 주변	토	Allb
259	전라	부안 죽막동 유적	삼국	제사유구	제사유구 주변	토	Allc
260	전라	부안 죽막동 유적	삼국	제사유구	제사유구 주변	토	Allc
261	전라	부안 죽막동 유적	삼국	제사유구	제사유구 주변	토	Allb
262	전라	부안 죽막동 유적	삼국	제사유구	제사유구 주변	토	Allb
263	전라	익산 미륵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청동	Bllb
264	전라	익산 미륵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토	Allb
265	전라	익산 미륵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토	Allc
266	전라	익산 미륵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토	Ald
267	전라	익산 미륵사지	고려~조선	사찰	사찰 건물지	토	Ald
268	전라	강진 삼흥리 요지	고려	가마	가마	토	Ald
269	전라	강진 삼흥리 요지	고려	가마	가마	토	Ala
270	전라	강진 삼흥리 요지	고려	가마	가마	토	Ald
271	전라	강진 삼흥리 요지	고려	가마	가마	토	Ald
272	전라	여수 모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a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273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a
274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b
275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b
276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d
277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a
278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d
279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d
280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d
281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b
282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d
283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토	Ald
284	전라	여수 묘도 요망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 정상	철	BIlb
285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c
286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d
287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a
288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b
289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c
290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c
291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b
292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d
293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lb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294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토	Alb
295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철	BlIb
296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철	BlIb
297	전라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통일신라~조선	산 정상	산 정상	철	Bla
298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299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300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301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302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303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304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305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토	Ala
306	전라	진도 용장산성	고려	산 정상	산정상	토	Alb
307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a
308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a
309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a
310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토	Ald
311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312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a
313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314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Ib

연번	지역명	유적명	시대	유적 성격	관련 유구	재질	형식
315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a
316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a
317	전라	신안 흑산도 상라산 제사유적	통일신라~고려	산 정상	산정상	철	Bla